

민천주보

제2610호

2020년 3월 29일 | 사순 제5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선교 사제 — • — 사우2동 성당 — • — 산곡3동 성당

입당송 | 시편 43(42),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1독서 | 에제 37,12ㄹ-14

화답송 |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 7ㄴㄷ)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

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 로마 8,8-11

복음 환호송 | 요한 11,25.26 참조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복음 | 요한 11,1-45(또는 11,3-7.17.20-27.33ㄴ-45)

영성체송 | 요한 11,2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교구장 사목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8)

이 주의 성경쓰기표

요 일	29(주일)	30(월)	31(화)	1(수)	2(목)	3(금)	4(토)
성경/장	루카17,20-18,17	18,18-19,10	19,11-19,48	20,1-20,40	20,41-21,33	21,34-22,23	22,24-22,53
확 인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60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목하고 있는 간석4동 성당도 작년 한 해 50여 건의 장례가 있었으니, 매주 몇몇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한없이 아파하고, 때로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체험을 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돌아가신 분보다는 남아 있는 사람에게 더 가혹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죽음을 반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는 있지만, 죽음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될 것이지만, 그 현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의외성으로 인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타를 향해,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시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8부 능선에 다다랐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부활’에 이끌려 줍니다. 분명,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선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이유! 십자가상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궁극적인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리 나와라.”(요한 11,43)

말씀 한마디로 부패하여 냄새나는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은 축 늘어진 우리를 당신 사랑으로 살려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죽음은 극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통해, 죽음을 넘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루카 12,29)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던 내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마태 6,33)을 찾고,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마태 16,24)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부활 신앙 안에서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 속에 있을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픔과 좌절을 견어내십시오.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언젠가 나도 부활할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거두고 힘내어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들 얼마나 경외롭습니까!”(시편 66,3)



신대근 마르코 신부
간석4동 주임

이주의 암송구절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1열왕 19,10)

코헬렛 - 허무의 책? 기쁨의 책!

오늘 만나게 될 코헬렛은 욥기와 함께, 전통 신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고자 노력합니다. 코헬렛이란 제목이 생소할 수 있지만,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코헬 1,2)라는 구절을 들으면, ‘아! 그 책!’ 하고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코헬렛을 ‘허무의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사 중에 연중 제25주간 짝수 해에 코헬렛의 단지 세 단락(1,2-11; 3,1-11; 11,9-12,8)만을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헬렛은 우리에게 ‘허무’라는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코헬렛은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헬렛의 말이다.”(1,1)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임금이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코헬렛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독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책의 제목 ‘코헬렛’도 바로 그 이름에서 유래합니다(참고로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전도서’라고 불렀습니다).

코헬렛은 책의 시작과 함께 자신을 임금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임금이라는 신분을 떠올리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부(富)와 권력을 모두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코헬렛은 그렇게 수많은 재산과 권력, 거기에 지혜와 지식까지 지닌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듯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높이 우러러보는 임금의 자리에 앉은 그가 옳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고. 어찌 된 일일까요?

그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깨우치려고 노력하였으나 바람을 붙잡는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참조: 1,16-17).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가 많으면 걱정도 많고 지식을 늘리면 근심도 늘기 때문이다”(1,18).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지혜와 지식의 추구가 허무하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였지만, 그 또한 허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도 마셔보고(2,3), 큰 공사를 벌이면서 궁궐도 지어보고(2,4), 많은 종을 소

유하여서(2,7) 자기보다 앞선 선대의 임금들보다 가장 부자였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태양 아래에서는 아무 보람이 없다”(2,11)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도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2,12-17). 이렇듯 그는 허무주의자처럼 모든 것이 ‘허무’라는 귀결에 이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의 노고로 먹고 마시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또한 하느님의 손에서 오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2,24). 허무로 가득한 세상처럼 보여지지만, 먹고 마시고,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직역하면, 내 영혼이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코헬렛은 깨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 그 좋은 것, 그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코헬렛서의 주인공 코헬렛은 우리에게 세상은 허무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글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에 부조리가 가득하고, 그러한 부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허무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선물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코헬렛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코헬렛은 자신이 임금으로서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만난 것은 허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눈을 돌려 일상이 주는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음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느님의 손에서 오는 기쁨의 선물인가요? 아니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무언가에 갈증을 느끼는 일상이가요? 갈증이 느껴진다면, 코헬렛이 전해주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봅시다. 지금, 이곳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마음이 우리를 갈증이 아닌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박형순 바오로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특별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특별 대사의 은총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곧 통상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신자들과 보건 의료 종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 기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에게 수여된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로마 12,12).

바로 성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은 교회의 역사 전체에 울려 퍼지며, 온갖 고통과 질병과 재난에 맞서는 믿는 이들의 판단을 이끌어 준다.

온 인류가 보이지 않게 은밀히 퍼져나가는 전염병의 위협에 처한 이 순간은 이제 언젠가부터 압도적으로 모든 이의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또한 나날이 극심한 두려움과 새로운 불확실성, 무엇보다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교회는 거룩한 스승의 모범을 따르며 언제나 아픈 이들에 대한 돌봄을 그 중심에 두어 왔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가르치신 대로 인간의 고통은 이중의 가치를 지닌다.

“고통은 그것이 세상의 구속 사업이라는 하느님의 신비에 뿌리박고 있으므로 초자연적이에요, 그 안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있으므로 또한 지극히 인간적입니다”(교황 교서 「구원에 이르는 고통」[Salvifici Doloris], 31항).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최근 며칠 동안 아버지로서 우리 가까이 계심을 보여 주시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아픈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거듭 초대하셨다.

본 교황청 내사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바로 그 고통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적 고통”(「구원에 이르는 고통」, 30항)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교황의 권위로(ex auctoritate Summi Pontificis) 대사의 은총을 허용한다.

내사원은 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지금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병이 개인의 회개를 열어 주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신자들에게는 전대사가 수여된다.

이들은 보건 당국의 명령으로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 상태에 처해 있지만,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미사성제의 거행에 영적으로 결합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깊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또는 다른 형태의 신심을 실천할 때에, 전대사를 받게 된다.

또는 하느님을 믿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련을 봉헌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적어도 신경, 주님의 기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경건한 간구 기도를 바칠 때에, 전대사를 받게 된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고 하신 거룩한 구세주의 말씀에 따라,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본받으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시달리는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와 가족과 그 밖에 모든 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에, 전대사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또한 내사원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전능하신 하느님께 이 전염병 확산의 종식,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 주님께서 당신께로 부르신 이들의 영원한 구원을 간구하고자, 성체 조배나 적어도 30분 이상의 성경 봉독, 또는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이나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Chaplet of Divine Mercy)를 바치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에 기꺼이 전대사를 수여한다.

교회는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고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인들의 통공에 힘입어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 드린다. 또한 임종의 순간에 놓인 신자들이 올바른 자세를 지니고 살아오는 동안 습관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바치기만 했다면(이러한 경우에 전대사에 요구되는 세 가지 일반 조건은 교회가 채워 준다.), 교회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이러한 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상이나 십자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대사 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12항 참조).

평생 동정이신 복되신 마리아께 비오니,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교회의 어머니,
병자의 치유이시며 신자들의 도움,
저희의 변호자이신 성모님,
고통받는 인류를 도우시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전염병의 악에서 저희를 구하시며
저희 구원과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선익을 얻어 주소서.

이 교령은 유효하고,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내사원에서
2020년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며
보편 교회의 보호자 성 요셉 대축일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시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는 인천교구장 5차 지침

지금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한달 이상을 저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동체 미사를 봉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주간이 시작되는 4월 6일(월)을 기점으로 다시 미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공동체 미사를 하고자 합니다. 4월 6일(월) 미사를 재개하기 전이라도 신자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 동안 성당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의료진에게는 힘과 용기를, 우리 자신에게는 굳센 믿음을 청하면서 우리의 위로자이신 성모님의 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영적인 준비 안에서 미사 재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3월 28일(토)부터 4월 5일(주일)까지 9일기도(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묵주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재개시 준비사항〉

- 1) 성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세정제를 반드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대비를 위해 미사참석 명단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름, 세례명, 전화번호 기재).
- 2) 미사 중에도 신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당 안에서도 거리를 두고 앉으며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피합니다.
- 3) 미사 중 성체를 나누어주기 전 주례사제가 제대에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신자들이 함께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침묵 중에 성체분배를 합니다.
- 4) 성가책이나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5) 가급적 성가를 부르지 않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 6) 코로나-19 감염증 증상이 있는 신자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환자는 대송으로 주일 의무를 대신합니다.
- 7) 어린이 미사와 청소년 미사, 주일학교는 본당 신부님과 공동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파스카 성삼일 전례〉

“2020년 파스카 성삼일에 대한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교령에 따른 한국 교구의 적용 지침”을 참조하여 파스카 성삼일 전례는 다음과 같이 거행하시길 바랍니다.

- 성유 축성 미사는 답동 주교좌 성당에서 인천교구 사제단만 참석하여 거행하겠습니다. 단,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사제평의회 위원들만 참석하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때 발씻김 예식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주님 수난 예식까지 거행하는 성체조배는 감실을 옮기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하는 묵주기도는 바치지 않고, 성경봉독, 침묵기도, 각 본당의 특성에 맞게 전례를 준비함).
- 주님 수난 성금요일은 전례서에 입각하여 거행하도록 합니다.
-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중 부활 찬송과 대영광송(성가대 만)은 노래로 하도록 합니다.
- 부활 판공 고해성사는 현 상황에서 어려우므로 ‘일팔고백과 일팔사죄’를 위해 성목요일과 부활성야 대축일 미사 전에 교구 4차 지침에 따라 시행하시길 바랍니다.